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新黨結成問題

一

「新事態下에는 新內閣」이라는 말을 남기고 退陣한 近衛內閣의 뒤를 이어 東亞新秩序建設의 大使命을 띠고 誕生된 平沼內閣이 國家의 總力을 戰爭目的達成에 集中시킨다는 即事變處理中心主義를 取하야 長期建設에 併行하야 當然히 斷行치안흐면 안될 內政改革─議會制度改革、貴族院制度改革、選擧法改正、行政機構改革、文官制度改正等─을 너무나 等閑視한다는 아니라 議會에서의 平沼首相의 答辯을 보더라도 內閣制度와 文官制度等은 改革할 意思가 업는것이 明瞭하야 平沼內閣이 此等內政改革問題에 對하야 何等積極的方策이 업는것으로 看破한 社會大衆黨、東方會等 小會派革新分子間에는 얼마전부터 東亞新秩序建設의 推進力을 組織하려는 第三黨結成運動이 擡頭된 結果 社大黨과 東方會는 드디어 近近合同하게 되엿다 한다。

二

周知하는바와 가티 社大黨은 昭和十二年十一月 次大會에서 從來의 『資本主義를 打破하고 無産階級의 解放을 期함』이라는 指導方針을 一擲하고 『勤勞大衆을 代表하야 資本主義를 改革하므로써 産業의 計劃化와 國民生活의 安定을 期함』이라는 新綱領을 내어걸어 劃期的 方向轉換을 한 所謂 그 傳統으로보아 革新分子의 左翼이며 東方會는 國民同盟에서 分離한 中野正剛一派를 中心으로한 團體로 昭和十一年五月 全體主義에 則하야 階級的 特權과 階級鬪爭과를 排除함」이란 綱領을 내어걸어 全體主義를 標榜하여오는 所謂 革新分子의 右翼이다 今番此等兩翼革新分子가 合同하야 新黨을 結成하게된다는 그들이 主張하는 革新意見이 元來 그다지 틀리는것이 업슬뿐만아니라 少數派로 分立되여잇는것보다는 合同하는것이 主張貫徹에 一層有益할 點으로보아 當然한 經路를 밟어가는것갓기도하나 二·二六事件以來 所謂從來의 旣成政黨의 腐敗가 失墜됨에 따라 單一黨組織運動 其他 新黨運動等이 政黨內外를 莫論하고 根氣지게 繼續되엿슴에 不拘코 全然失敗에 도라가고잇는때인만큼 비록 小數黨이지마는 社大、東方의 合同에依한 第三黨結成은 黨그自體보다도 그것이 旣成政黨의 將來의 行方을 暗示하는 點에 그重大意義가잇다고볼것이다。

三

그러나 社大黨과 東方會가 合同하야 新黨을 結成한다하여자 그들의主張이 그다지 旣成政黨의 政綱과 뛰어나게 다를것이업슬뿐더러 그의勢力은 五十名도 되지못하는바로 到底히 그들이 高調하는 東亞新秩序建設의 推進力이 될수잇슬지 疑問이다 政民兩黨이 國民의 選良百七八十名式을 抱擁하고도 겨우 政府에 伴食大臣一人式을보내고 또政府의 施政策을『戰時下』라는 口實下에 徹底히 糾明치도 못하며 抽象的이며 漠然한『總親和』라는 新造語의 魅力에 끌리며 自黨의 政策을 反映시킬 氣魄이업는이 時局이고 보매 비록 革新을 標榜하는 第三黨이라고는 하나 그들이 얼마만한 推進力이 될지는 疑心안흘수업다 如何튼 現在政黨은 噴火山上에잇서 黨人은 勿論 政界에는 政黨改組問題가 高調되고잇는 이때인만큼 今番社大、東方의 合同이 政民兩黨을 包含한 政黨의 大同團結의 動機가 된다면 그보다 더 意義가 깁흔것이 업슬것이다。

國民精神總動員强化策
昨日閣議서最後決定
委員會官制廿日頃公布豫定

【東京電話同盟】九日의 臨時閣議에서 決定된 國民精神總動員强化方策은 左와갓다

◀國民精神總動員强化方策

一、主旨

時局의 現段階에 臨하야 國民精神總動員運動으로하여금 眞實로 新東亞建設에 對處할 綜合國力의 充實發揮 國民精神總動員態勢强化에 도음이 되도록 하기爲하야 此際民間機構인 中央聯盟을 改組擴充하고 그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기를 期待함과 同時에 政府와의 連繫를 緊密히 하고 官民一體의 實을 擧하게하기 爲하야 새로히 官民合同의 國民精神總動員委員會를 設置하고 이의 企畫及指導의 綜合一元化를 期하려한다

二、中央聯盟에 關한 事項

聯盟은 企畫及實施에 當하야 一層加盟團體를 適合하야 그 機構의 充分한 發揮를 期함과 同時에 그 實施를 促進할것

가、理事長을 두고 同時에 常任理事若干名을 두어 少數理事制의 實을 擧할것

나、幹事若干名을 두고 同時에 常任幹事數名을 두어 常任理事를 輔佐케할것

다、評議員의 活動을 充分케할것

라、聯盟事務局의 內部를 組織化하고 職員의 充實을 圖할것

三、中央聯盟과 政府와의 連絡、機構에 關한 事項

가、새로히 內閣總理大臣管理下에 (假稱)國民精神總動員委員會를 設置하야 國民精神總動員에 關한 企畫에 當케할것

나、國民精神總動員委員會 會長은 內閣總理大臣의 奏請에 依하야 國務大臣中으로부터 任命할것

다、國民精神總動員委員會의 決定은 閣議의 決定을 經하야 實施할것

라、國民精神總動員委員會의 庶務는 內閣情報部로써 當케할것

四、地方의 機構에 關한 事項

道府縣의 國民精神總動員 地方實行委員會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케함과 同時에 必要에 應하야 國民精神總動員事務局을 設置할것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國民精神總動員强化策에 關하야 九日閣議에서 承認을 엇엇슴으로 即時 法制局으로하여금 『國民精神總動員委員會』의 官制案을 作成시켜 느저도 二十日頃까지에는 官制를 公布하고 同時에 同委員長以下 委員幹事를 任命하야 活潑한 活動을 開始하기로되엿다

그리고 總動員强化方策의 要點은 現在의 中央聯盟을 그대로 存置하고 實行機關으로서 効果를 發揮시키는 同時에 政府에 企畫指導機關으로서 總動員委員會를 設置하야 兩者의 有機的關係를 密接히하려는것이다 그리고 當初의 原案은 委員會總裁에 首相을 推戴하려고하엿스나 이것을 中止하고 總理大臣管理下에 委員長을두어 首相의 奏請에 依하야 國務大臣中에서 勅命하기로되여 初代委員長은 荒木文相이 될 內定이다 그리고 從來의 中央聯盟役員은 大部分一新될터이라한다

參議會

【東京電話同盟】町田參議、前田參議、各參議(松岡、鄕、大谷各參議缺席)는 九日正午首相官邸에 參集하야 參議만의 懇談會를 開催하고 午餐을 가티하면서 參議會의 運用其他에 對하야 協議하고 午後二時지나 散會하엿다

故加藤大將葬儀 來十二日執行

【東京電話同盟】故加藤寬治大將의 葬儀는 來十二日午後一時半부터 佛式으로 築地本願寺에서 海軍葬으로써 執行한後 同二時半부터 一般告別式을 行할터이다

社大、東方兩黨
合同決意를各其聲明

社大黨聲明

【東京電話同盟】社會大衆黨에서는 東方會와의 合併問題에 關한 態度를 決定코저 九日午前十時부터 그本部에서 常任中央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協議한結果 合同에 同意하기로 決定하고 그 全部를 安部黨首에 一任키로 決定한 다음 即時 左의 聲明書를 發表하고 正午지나 散會하엿다

一、我黨은 方今東亞新秩序建設이라는 有史以來未曾有의 大業을 敢行하고잇다 聖戰은 이미 三年 貴重한 國民을 犧牲시킨 聖戰有終의 成果를 收納하기 爲하야 國內革新을 斷行하고 國內態勢의 整備를 成就하지안흐면 안된다 이 東亞新秩序建設 國內改革의 基本이 되는것은 實로 革新的 政治勢力의 急速한 集結이다

一、我等은 昨年七月 聖戰滿一周年에 際하야 이 革新的 政治勢力을 結成코저 『自己를 도라보지안코』 努力할것을 聲明하엿다 我等은 先次東方會와 가티 新政黨을 結成하고 『國民의黨』組織의 日步를 踏出하려한다

一、今回의 革新政黨結成은 將來 擧國一致的 革新政策의 基本이 되는것으로서 이것을 發點으로하야 東亞革新의 擧國的 國民의 黨을 組織코저 全努力을 바치려한다 我等은 東方會와 가치 新黨結成協議를 作合함에 當하야 널리 同志의 士가 協力하여 주기를 切望한다

東方會聲明

【東京電話同盟】東方會에서는 社會大衆黨과의 合同問題에 關하야 九日午前十時부터 澁池의 本部에서 緊急代議士會를 開催하고 協議한結果 合同問題는 全部를 中野會長에 一任키로 決定하고 十一時半 散會한다음 即時中野會長으로부터 左의 聲明을 發表하엿다

◀東方會의 發展的進出

東方會는 急迫한 現下의 情勢에 鑑하야 光榮잇는 이때를 도기의 發展的進出을 決意하엿다 我等의 最初의 計畫은 革新陣營의 全部의 結合이엿스나 迂餘曲折을 經過한 다음 先次社大黨及 東方會의 決意를 表明하고 即時 天下의 同志에 呼訴하기로되엿다 나는 今日午後三時 東方會代表의 資格으로써 社大黨首인 安部磯雄氏와 會見하고 詳細히 意見을 交換한 다음 全體主義革新政黨을 結成할 結論에 到達할 決心이다 이 點에 對하여서는 機會잇는대로 諸君과 非公式的 協議를 거듭하여왓던바 今日다시 公式의 機會에 臨하고 將來에 對하야 機宜의 手段을 講究할 使命을 一任맛기를 切望하는바이다

敵死者一萬七千餘
一月中北支方面綜合戰果

【東京電話同盟】九日陸軍報道部發表 北支方面에서 我軍이 一月中에 行한 討伐狀況과 및 其中重要한 作戰戰果는 如左하다

一、大寧及 吉縣附近에잇는 閻錫山軍(第七十二師第六十九師第六十六師其他新編第八師)에 對한 我軍의 討伐은 舊臘二十五日以來 開始되야 一月上旬에 多大한 戰果를 거두므로써 終了되엿다 本作戰에서 敵軍은 潰滅的 打擊을 밧고 黃河以西에 退却하엿는데 閻錫山軍은 陝西省內로 遁入한 模樣이다 戰果의 大要는 如左하다

◀敵遺棄死體 三、三〇六 ◀捕虜 一〇六

◀重要鹵獲品 小銃九六 重機二 輕機一六 自動小銃一一、迫擊砲二 小銃及機關銃彈藥 七萬九千 迫擊砲彈八〇 野砲彈藥二四一

我方損害는 戰死六七

二、山西西南部 中條山脈地帶에 蟠居하는 第十七師第百七十七師 獨立第四十旅 同四十七旅 第六十六師 陝西警備第三十三師等 合計約一萬四千七百의 敵軍을 一月下旬以來 討伐中이던 我軍은 同月末까지에 如左한 戰果를 거두엇다

◀敵損害 遺棄死體二、七〇〇(團長二) 捕虜 三九一(將校五)

◀鹵獲品 迫擊砲九(重七 輕二) 同彈藥 九八 山砲三〇 重機八 同彈藥 一、九〇〇 輕機二二 小銃三三二 同彈藥 二四、一〇〇 自動小銃一〇 拳銃一 同彈藥一、〇〇〇 銃劍一一一 手榴彈八六 無電機四 電話機四 其他

◀我方損害 戰死九 戰傷八八

三、微山湖西方沛縣、豐縣附近一帶에잇는 敗殘兵을 討伐中이든 我軍의 一月末까지의 戰果는 如左하다

◀敵損害 遺棄死體 一、一二三

◀捕虜六一

◀鹵獲品 重機二 小銃一〇九 拳銃四 戰車四四 自動車四 馬四七 其他

◀我方損害 戰死四 戰傷一二

그리고 綜合戰果槪要는 如左하다

◀敵損害 遺棄死體約一七、〇〇〇 捕虜約五〇〇

◀鹵獲品 小銃一、一三〇 拳銃一五 銃劍一〇〇 小銃彈藥二六、八〇〇 重機彈藥約一、九〇〇 輕機約四〇 擲彈筒三 迫擊砲約八四 迫擊彈藥約一〇〇 戰車(裝甲自動車)約四五 重機四〇 山砲彈三〇 其他多數

◀我方損害 戰死一一六 戰傷三五三

七萬鹿鍾麟軍
完全殲滅도在邇

【北京九日發同盟】一月上旬以來 河北省冀南地區에 兵力을集結하야 蠢動하고잇던 鹿鍾麟、石友三軍을 一擧에 殲滅하고저 一大包圍陣을 베푸러 八日戰端을 연 我軍은 次次包圍網을 壓縮하고잇다 吉澤部隊는 九日午前十時 安平(石家莊東方九〇키로)을 完全占領하고 左翼進擊을 小西部隊도 滏陽河를 渡河하야 同日午前 前記陽을 占據하엿다 一方岐部隊는 南方面에서 南宮을向한 部隊는 南宮南方 五、六키로附近에 肉薄하고 寧晉을 進發한 部隊는 九日午前八時四十五分頃 新河를 占領하엿다 이리하야 集結兵力七萬이라 稱하는 鹿鍾麟軍의 運命은 이제 最後의 頭에서 게되엿다

分進合擊體勢로
敵本據南宮에肉薄
冀中殘敵總攻擊戰展開

【石家莊九日發同盟】冀中을 掃蕩中인 我軍은 各處에서 敵을 擊破하고 分進合擊 包圍陣을 壓縮하고잇다 敵은 大動搖를 示하야 東南宮附近의 敵은 벌써 逃走하려고하고잇다 九日까지의 戰況은 如左하다

一、橫山部隊 一部는 八日夕刻頑强抵抗하는 敵共産軍을 擊破하고 東鹿을 完全占領하엿다

一、近藤部隊는 九日午前八時 小南寺庄(南宮西方五十里)의 敵을 擊破하고 이어 〇〇에 向하야 北進中이다

一、福榮部隊一部는 八日正午 舊宮(東鹿北方五十里)를 完全占領하고 敗敵을 急追中이다

一、毛利部隊는 九日午前八時四十分 新河西方 蘇家鎭을 奪取하고 敵本據南宮을 距한 二十里까지 肉薄하엿다

【寧晉九日發同盟】冀中地區에 蟠居하는 鹿鍾麟、石友三軍의 殲滅을 期하려는 我軍은 八日早朝 晉縣方面을 進發한 福榮部隊와 一齊히 前進攻擊을 開始하야 晉縣의 橫山、須藤、野澤各部隊는 所在의 敵을 擊破하면서 東南에 進하야 一齊히 滏陽河를 向하야 殺到하엿는바 八日夕刻에는 東鹿의 線에 進出하야 滏陽河까지 僅僅七十里밧게 남지안헛다 또 中央學習方面에서 急進한 毛利部隊의 栗棲、赤城兩部隊는 八日朝 前面의 敵에 對하야 攻擊前進을 開始하야 赤城部隊는 午前九時半 滏陽河重要渡河點인 侯家口를 頑守하고잇는 敵을 急襲潰走시켯다 敵重要據點 新河까지 僅僅二十里餘밧게 남지아니하엿다 이에 呼應하야 鉅鹿方面에서 東北進한 毛利部隊、岡部隊는 一齊히 千餘里를 突破하야 北上한 西大條部隊、近藤部隊와 協力하야 八日午後二時 敵의 最大據點인 南宮南方四十里의 郝庄을 完全占領하엿다 그리고 近藤部隊의 主力은 前進開始後 얼마 안되여 陣地에 占據하고 잇든 敵七百과 交戰하야 擊破하얏다 敵遺棄死體는 六十이요 其他銃器彈藥多數를 鹵獲하엿다 이리하야 巧妙한 分進合擊에 南宮周圍에잇는 敵五百은 벌써 動搖하고잇다

冀東地區肅淸開始

【石家莊九日發同盟】冀東地區를 〇〇에서 行動을 開始한 近藤部隊는 所在의 敵을 驅逐하면서 八日午前九時半 石頭鎭(順德東方二〇키로)을 完全占領하얏다 그리고 我軍의 四方으로의 包圍作戰이 着着進捗하야 敵主力은 完全히 袋中之鼠가 되려하고잇다

新河도占領

【寧晉九日發同盟】冀中地區를 掃蕩中인 赤城部隊는 八日夕刻 滏陽河의 渡河點 侯家口를 奪取하고 即時兵力을 西方渡口에 集結하야 九日午前六時 敵의 據를 衝하야 辛庄渡河點에서 結氷된 滏陽河를 敵前渡河하야 同線에잇는 三、四百의 敵을 擊破하고 同八時四十五分 新河에 殺到 이를 占領하엿다 同部隊는 更히 〇〇을 向하야 急進中이다

西人民戰線部內
和戰兩論對立

【루브르라스(佛西國境)八日發同盟】和平降服問題를 圍繞하고 네그린首相의 人民戰線政府內部에는 아사나大統領의 和平降服論과 徹底的抗戰論과의 兩論이 對立하고잇는바 네그린首相은 人民戰線政府의 數閣僚와 가티 目下 佛國領內에 滯留하고 人民戰線軍將兵의 避難完了를 기다리고잇다 네그린首相은 人民戰線軍將兵의 避難이 完了한다음 最後의 牙城바렌샤에 飛去 玆에 據하야 最後까지 抗戰을 繼續할 決意를 하고잇는 模樣이다

(寫眞은 사니아大統領)

滿洲西部國境에
蘇聯兵又復越境發砲

【哈爾濱九日發同盟】西部滿蘇國境에서의 蘇聯兵의 不法挑戰行爲가 頻發하고잇는 이지음 또다시 六日午後三時 三河西方아르군河對岸노보츠르하이치에서 蘇聯兵數十名이 自動車三台에 分乘하야 滿洲國領內에 不法越境하야 我方監視隊의 背後를 迂回해와스므로 我方은 不得已 應戰하야 擊退하엿다 翌七日午後四時에 右蘇聯兵二十名이 砲一門及 機銃若干을 加하야 前記地點에 襲擊해와스므로 我方은 이와 交戰四時間後에 擊退하엿다 敵損害는 死傷七、八名이엇는데 同地方蘇聯軍은 漸次 兵力을 增强하고잇스므로 我方은 嚴重警戒中이다 그리고 滿洲國外務局下村特派員은 事件勃發과 同時에 哈爾濱駐在蘇聯總領事에 對하야 嚴重抗議를 提出하엿다

興安省東方엔 內蒙兵越境

【하이랄九日發同盟】去一月二十七日 興安北省보일湖東方 몬附近에 內蒙兵十數名이 不法越境해온것을 發見한 滿洲國警察隊員은 即時이를 包圍交戰한지 三時間만에 敵은 遺棄死體二 負傷一 輕機其他를 버리고 逃走하엿다

아그레망의史的考察
上 邊成烈

一、아그레망語義

오래동안 病席에잇다가 最近歸朝한 杉村陽太郞博士 後任駐佛大使로 決定된 谷正之公使는 赴任準備萬端을 畢하고 世界外交舞臺를 向하야 出發日을 苦待하고잇섯다. 이런 事情을 不顧하고 日本政府가 昨年十二月에 佛國政府에 對하야 要請한 『아그레망』은 拒絶을 當하엿다. 谷正之氏는 多年間 外交官으로 佛國에 駐在하엿슬뿐아니고 現在外務省에서는 所謂 巴里派巨頭로 佛國事情에 通한 人格者로 性質도 極히 圓滿한 八方美人型紳士로 適任者다. 故로 佛國이 個人的理由로 谷正之氏의 『아그레망』拒絶은 內外가 모두 意外로 生覺하는바다. 一月二十七日 衆議院第一控室代議士室井重治氏가 谷公使의 駐佛大使任命『아그레망』拒絶眞相質問에 對하야 外相은 事件前後事情을 說明한後 政府는 同日閣議決定으로 內閣書記官長談形式으로 그前後事情顚末을 發表하니 이는 昭和四年 濱口內閣當時 小幡酉吉大使 『아그레망』拒絶以來 十年만에 또다시 새삼스럽게 國民間에 『아그레망』問題에 關心을 가지게되여 議會에서도 種種質問을하게 되엿다.

그러면 問題中인 『아그레망』이란 무엇인가? 佛蘭西語(Agrement)은 英語(Agreement)와 同一意味로 同意、承諾、一致、協同等을 表顯하는것이나 外交上常用語로서는 國家가 外交使節을 派遣할때 相對國政府에 對하야 그 使節人物에 對하야 異存有無를 事前에 照會하는것을 Agrement 要請이라하며 이 要請에 對하야 接受國에서 異存이업는 人物或은 駐在國政府又는 帝王이 好感을가진 人物을 Persona Grata (펠소나·그라타)라稱하며 이와 反對로 異存이잇는 人物을 Persona non Grata (펠손나·논·그라타)라稱한다.

이 『아그레망』要請에 對하야 駐在政府는 國際法上使節人、性格、國際政治的意義其他理由로 拒絶할수잇다 勿論 『아그레망』要請은 各國에 異例가 만타 例示하면 北米合衆國은 大使任命에 對하야만 『아그레망』을 要請하고 公使以下外交官任命에 對하야는 要求하지안는 慣例다. 最近까지 日本은 支那에 對하야 外交官任命 『아그레망』要請을하지아니하다가 昭和四年十一月濱口內閣當時 幣原喜重郞 外務大臣은 國際禮讓上 支那當局等國待遇를 할생각으로 小幡酉吉支那公使任命『아그레망』要請을하엿슴에 對하야 當時 國民政府는 明確히 拒絶하엿다.

外交使節이 個人的理由로 駐在國『아그레망』拒絶을 當한例는 英米佛諸國을 爲始하야 世界各國에 相當히 만타 一般國交關係가 正常狀態에 잇는때는 兩國間外交使節交換을 至極圓滿히 行하나 反對로 最近과가티 國際關係가 微妙하며 險惡한 事情下에서는 外交官任命上紛糾를 招來하는일이 種種잇다.

最近例로 伊太利가 『에티오피아』를 征服當時 伊太利政府는 佛蘭西가 新任駐伊大使 드·샹푸란氏任命 『아그레망』要請에 對하야 佛國은 『伊太利國王兼 에디오피아皇帝』 信任狀捧呈을 不肯하다는 理由로 拒絶하엿다 그는 伊太利全國力을 傾注하야 征服한 『에티오피아』領有를 無視하는 佛國態度에 激怒한 結果 兩國國交가 險惡하게된것이다. 이에 對하야 伊太利는 駐佛大使 『첼루치』氏를 即時召還하고 爾來二年間兩國間에 正式大使交換을 中止하고 代理大使로 外交事務를 辨理하여왓다. 其後英伊協定調印後 『뮨헨』四國會議에 對하야 佛國政府는 伊首相뭇솔리니氏에 懇請決議를하고 伊國要求대로 新任駐佛大使 信任狀은 『伊太利國王兼 에디오피아皇帝』에 捧呈하기를 條件으로하야 伊大使 『부론나스』氏 『아그레망』要請을하야 伊國도이에 同意하엿다 一九三六年十月 駐伊大使 『드·샹푸란』氏 歸國後二年만에 一九三八年十月五日 佛國은 代理大使 『부론나스』氏를 正式駐伊大使로 任命하고 圓滿解決하엿다.

二、『아그레망』要請起源

그러면 이러케 國際上紛糾의 種子를 撒布하는 『아그레망』要請을하는 慣習은 어느때부터 始作되엿는가? 이 起源을 알고저하면 必然的으로 常駐外交使節制度起源을 歷史的으로 考察하야볼 必要가 잇슬것이다.

外交使節의 派遣及 이를 接受한 駐在國家가 使節에게 賦與하는 特別待遇의 起源은 古代에 及하며 羅馬法 『디게스타』中에 『프로푸』說로 左記一句를 發見하얏다

『萬一敵國使節을 攻擊하면 그는 Jus gentium (國際法)을 冒瀆함이라 破棄하엿다고볼것이다. 使節은 神聖한까닭이다. 故로或國의使節이 我國滯在中 그國家와 關係가 斷絶된後에도 그使節을 自由로 保護할必要가잇다. 是는 Jus gentium에 忠實이從하는所以로다』

中世紀文明을 開花시킨 『아라비아』人도 同樣觀念을 外交使節에 對하야 가지고잇섯다. 이事實은 文獻上 證明할수잇다. 또十三世紀中葉에 編纂된 西班牙法典에도 『가스티─란』에 오는 諸使節은 惡質敎徒나 回敎徒나 그敵如何는 不問하고 安全保障을 賦與하엿스며 何人을 勿論하고 彼等使節의 身體及 財産에 加害를 不得한다는 規定을 設置할수잇다 (Holder… Die Völkerrechtliche Sonderstellung des Gesandten 三四頁)

此等文獻에 表現된 使節은 오로지 一時的使節이다. 近代的 常駐使節 發端에 對하야는 諸說이 만흐나 前記 Hotborn氏는 一四五五年『밀란』이 『제노아』에 常駐한 外交使節을 嚆矢로한다』 이 常置外交使節制度는 諸國間의 外交交涉에 만흔 便宜를 加하야 國際關係狀態를 一變하엿다. 一般國際法學者는 第十三世紀頃부터 이制度가 採用되여 伊太利諸共和國 特히 『베니스』가 外國에 常駐外交使節을 派遣한것이 嚆矢라고한다. 其後十五世紀에 이르러 伊太利諸共和國은 西班牙、獨逸、佛蘭西、英吉利等에 互相常駐外交使節을 派遣하고 其外諸國에서 亦是 漸次 常駐外交使節을 派遣하게 되엿스나 第十六世紀에 이르러 이 常駐外交使節制度는 西部及中部歐洲諸國에 波及하야 『웨스트팔리아』會議後에 該制度는 一般的으로 行用되야 外交制度로 確立되엿다.

中世紀後期에 이르러 伊太利 諸國 佛蘭西等 諸商業都市에 商業者團體가 商業上紛議를 仲裁하며 外部에 對하야 商業者利益을 保護하는 人物을 選擧하는 習慣이 잇섯는데 十字軍當時及 其後 此等商業團商業者는 東方諸國에 가서 『콘쉴』(Consul)을 選擧하기始作하엿다.

十四年度追加豫算
今月末議會에提出될듯

【東京電話同盟】臨時軍事費追加豫算은 今月末議會에 提出될 豫定인데 이와 密接한 關係를 가진 陸軍新國防計劃及 海軍建艦計劃에 要할 昭和十四年度追加豫算도 이와同時에 議會에 提出될터로 臨時軍事費의 一部財源에 充當할 增稅案은 臨時軍事費追加豫算에 압서 議會에 提出될 豫定이다 그리고 昭和十四年度追加豫算으로서는 이外에 米穀會社 對支文化工作 大日本航空株式會社及 日本輕金屬工業會社關係의 補助 北京興亞院連絡部設置에 要하는 經費 生産力擴充을 目的으로하는 技術者養成에 要하는 經費 其他 昭和十四年度本豫算編成當時 計上困難하얏든것等 相當多額의 追加豫算이 提出될터이라 한다

辭令

依願免本官 (慶南)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龍山乾太郞
依願免本職 (慶南)朝鮮産業技師 熊崎兵七

夕刊後市況 九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阪 群山 木浦 下關 名古 [illegible]

◆各地 商品 後引◆ 當限 先限
橫濱生系 [illegible]

大審院長後任
立石氏가有力

【東京電話同盟】九日逝去한 池田大審院長後任은 來十二日告別式終了後 後任者詮衡키로된바 後任候補者에는 立石、名古屋控訴院長、泉二檢事總長의 兩氏가 有力하나 目下의 情勢로는 立石氏의 榮轉이 가장有力視된다

池田大審院長逝去

【東京電話同盟】大審院長正三位勳一等 法學博士池田寅二郞氏는 感冒로 去月廿七日부터 東京市澁谷區幡谷本町一의八 自宅에서 加療中이던바 肺炎을 倂發 九日午前五時五十分마츰내 逝去하엿다 享年六十一 氏는 佐賀縣人으로 明治三十六年 東京帝大法科出身 同年司法官試補 大正七年에 法學博士가되엿고 同十年부터 昭和三年까지 司法省民事局長으로 잇다가 同年十二月大審院部長會計檢査官、懲戒裁判所裁判官、司法制度調査委員을 經由 同十一年 林內閣三部博士(現在樞密顧問官)의 뒤를니여 大審院長의 要職에 就任 司法界의 長老로 民事局長時代에는 『池田民事』로 名聲을 날리엇고 英國法의 權威다

今日의 兩院

【東京電話同盟】◀貴族院 午前十時부터 本會議를 열고 公證人法中改正法律案 兵役法中改正法律案 委員長의 報告가 잇슨後 이를 可決하야 곳 衆議院에 送付될것이다 그리고 午前九時五十分부터 決算小委員會(正副委員長互選) 北海道土工組合法中改正法律案(正副委員長互選) 午前十時부터 宗敎團體法案 借地借家調停法中改正法律案等 各委員會를 열터이다

◀衆議院 本會議는 업고 午後一時부터 豫算總會를 열고 午前中 各分科會에서 決定된 明年度 總豫算案을 可決할터이다 그리고 第六分科會는 午前十時부터 豫算第一乃至第六分科會 赤字公債發行法 午後一時부터 朝鮮事業公債法 各委員會를 열터이다

春季新學年 校外生募集
早稻田大學의講義錄

三千年의歷史를 通하여일즉업던 日本民族의大業 完成의時!

只今이야말로누구나實力의養成에努力하라。

詳細는見本으로 說明함。

中學講義 學費月一圓・前後期各一年

女學講義 一年半 月一圓

商業講義 學費月一圓・一年半修了

電氣工學豫備講義 一ケ年 月一圓

專門學校程度

政治經濟講義 一月一圓廿錢 一年半修了

法律講義 一月一圓廿錢 一年半修了

文學講義 一月一圓廿錢 一年半修了

建築講義 一月一圓卅錢 一年半修了

電氣工學講義 一月一圓卅錢 一年半修了

內容見本 見本은반드시志望하는講義錄을써서葉書로申込할일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一三 電話牛込三四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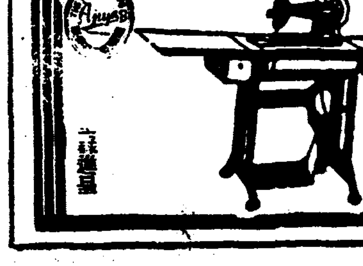
サンエッチ H.H.H. 靴クリーム 靴を丈夫にする

セイコウシヤ營業所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ノ一六 振替東京一五七九四番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一劑十圓 平和堂 京城堅志町

治療師短期養成
日滿政府特許 英米獨佛特許 器械鍼
鍼灸
全國無試驗開業
通信科・實地速成科
京城府大和町二丁目五五 奧村療法朝鮮學院

代理店募集
アジヤーミシン
優秀한國産의꽃 國産ミシン
元賣發 アジヤミシン製造
朝鮮ミシン商會
京城府新倉里一一三 電話2498 振替24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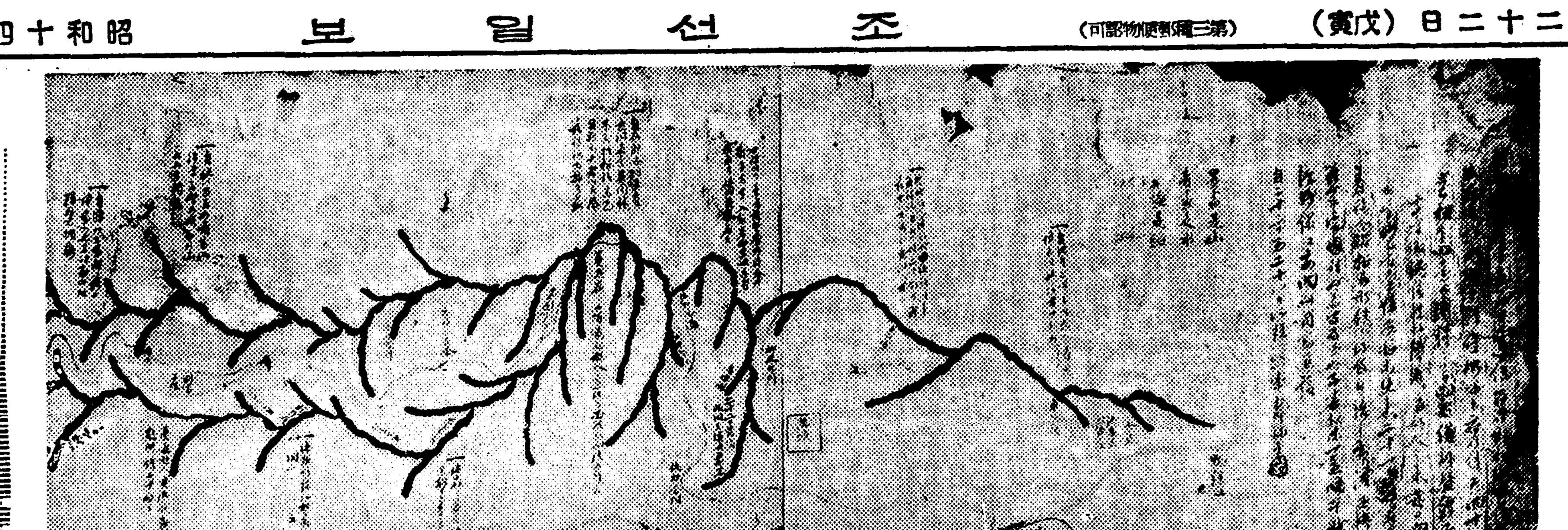


滿洲史研究에 珍寶!

『建州紀程圖記』發見

宣祖朝當時에南部主簿申忠一이가作製하야復命한
淸太祖發祥地踏破機密圖

李仁榮氏所藏



조선사(朝鮮史)와 만주사(滿洲史)연구에귀중한문헌인 연경재(硏經齋)의 건주기정(建州紀程)은 너무유명하거니와 이건주기정의 모체라고할만한 건주기정도기(建州紀程圖記)라는지도가발견되엿다 건주기정도기는 지금으로부터 삼백오십년전선조(宣祖)때중대한 군사적임무를 띄고여진(女眞)성중에드러갓던 군사밀정 남부주부(南部主簿) 신충일(申忠一)의 보고서에첨부되엿던 기밀지도(機密地圖)로서 조선 만주 지나(支那)등 동양사연구에 새로운광명을 가저올것으로보게에 큰화제를 이르키고잇다

선조 이십오년 임진란(壬辰亂)이일어나서 조선은유사이래 초유의 국난에당면하자 만주소자하(蘇子河)류역에서 세력을느리고잇던 건주위(建州衛)추장 누루하티(奴兒哈赤)(나중淸太祖)의 여진(女眞)사람십여명이 선조이십팔년칠월에 평안도 위원(渭原)에침입하야 인삼(人蔘)을 칠채하다가조선관리에게 발견되여 체포잘해당한사건이잇섯다 이사건에분개한 여진족은 대군을이르켜서 조선에복수한다는 정보를바든 당시조정에서는 임진난리중이므로 아모리생각해도 그들의 침입을막을 도리가업서서 평양에 주둔한 명(明)나라병정일부를 만포(滿浦)에 출병하고 한편으로는 건주누루하티성에 그당시 명석한무인 남부주부 신충일을 만포첨사(僉使)의사자의 명목으로 공문을가지고 드려가게하야 성내의 구조와 군대수효며 생활상태 군비등을 정탐하게하엿다 일주일동안 성내에 머물너잇스면서 상세히부근지도를그리고 도라와서도해보고서두통을 작성한뒤 한벌은조정에제출하고한벌은자기집에 두엇던것인데 그뒤 선조실록(實錄) 칠십일권에 이보고서가 수록되엿스나 지도는 삭제되엿섯다

×

그뒤 이지도는 신씨집에전해내려오다가 거금백여년전에 성연경제(成硏經齋)가 신씨집에잇는이지도를 보고건주기정을 초록하야 후세에 전하엿섯는데건주기정은 별서사학계에 널리알려저잇스며 현재 진단학회(震檀學會)에 보관되엿스나 지도는 히귀한것이라고 학계에서도오래동안 찾던것이다 지도에는 물은푸른빗으로 길(路)은 주색(朱色)으로 채색하엿스며 더욱고구려 환도성(丸都城)지금의집안현통구(輯安縣通溝)를 황성(皇城)이라하고 일천오백년전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이 만주를정복시켯던때 세운비(碑)까지뚜렷하게그려저잇서서 지금까지 사학가들이 환도성(丸都城)이라고하는곳이 여기에는 황성으로쓰여잇스므로 이것은 새로운사의재료라하야 학계의 주목을끌고잇는데 발견된지도는 사학가이인영(李仁榮)씨가 보관해기지고잇다 (사진은 건주기정도기의일부)

白晝北岳山腹에他殺屍體

被害者는中年男子
附近의樵童들이發見

피로물드린現場엔格鬪形跡도狼藉
舊曆歲末의獵奇的怪事件

북악산의 허러진 성문미테서 보기에도 끔찍스럽게 피투성이가된 중년남자의 타살시체가 발견되여 탐정소설가튼 엽기(獵奇)를 자아내고잇다……(사진은 현장부근약도)

일훗지위도 풀리여서 사온의 따스한 구일오후네시경……북악산북창문(北彰門)에서 약일정가량삼청정(三淸町)쪽으로 내려온송림사이에 솔닙을 줍고잇던 성북정(城北町)나무꾼 아이들이 중년남자의 시체를 발견하얏다 어린이들은 놀라온남어지꼬동리로달려가서 이말을전파하자 성북정방호단(防護團) 변영수(邊永壽)씨와사립구수 양윤국(梁九國)씨가 동리젊으니 육칠인을 다리고 어린이들의안내로 현장에올러가보앗더니 과연피투성이시체가누어잇스므로 그들은곳소격정(昭格町)파출소를통하야 종로서에보고하엿다 동서에서는즉시 이등(伊藤)사법주임이 게원을 대동하고 현장에 달려가서 임검한결과 시체는 동편을향하야모로 누엇는데 오른편손목이 피투성이가되엿스며 고동새저고리에 회색바지를 입고 머리는 빽빽깍근 사십이삼세가량의 남자이엿다 채림채림으로 보아 생활은넉넉해보이며 허리춤을 노출시켜노앗고 입은 말숙하야 자살안흔적이업고 얼굴빗갈로 보아 죽기는 오정뒤에 죽은것이 틀림업섯다 다시 그시체가누어잇는 머리마테 돌우에는 힌고무신이 노히엿섯스며 다시시체에서 삼미돌가량 나려와서 송림사이에 힌두루마기와 고동색중절모자가 노여잇섯다 현장에는 장시간동안 맹렬한 격투를한흔적이잇슴과 여러가지점으로 보아서 타살에틀림업스므로 다시 이시체는 실일경찰부에서 해부에 부치기로결정하는한편 사건을 극비밀리에 부치고 활동을 개시하엿스나그러저녁밤이 되엿스므로 수사에 필요한것을 발견할도리가업서서 끈ᄒ을 밧고잇다

바람과가티나타난怪人

現場附近에徘徊하는것을檢束

다살이라면 대체누구가? 무엇때문에? 무엇을가지고? 어떠케죽엿슬가? 북악산 괴타살시체사건을 차고도는 수수꺽기의 수사선우에 이또한 정체불명의 괴상스런 청년한명이 크로스업하야서 사건의엽기미를 더한층 도두고잇다

이야기는 다시 성북정방호단원이 어린이들의 안내로 현장에올러가던 산허리로 도라간다 시체가 발견되기는 오후네시쯤! 성북정 방호단에서 알기는 다섯시쯤 해가질무렵에 방호단원들이 산허리를 올너가자 북창문 못미처 손에톱과 칼과가위를들고 내려오는 이십사오세가량되며 보이는 실업자비슷한 청년한명이 내려오므로 갑득이나 긴장되엿던 방호단원들은어슴프레하저문산길에서 거동이수상한청년을보자 곳잡성기분에사로잡펴서 그를붓들엇다

『누구나?』

청년은 말을하지안코 초조한 눈초리만 빗내고잇섯다

『어디사느냐』

『돈의동(敦義洞)이십이번지에산다』 겨우그는 입을열엇다

『무엇하러산에왓니?』

『놀너왓다』

『누구와함께왓느냐?』

『눈(雪)과놀녀왓다』

따스한오후날세에 산우에다도 눈은 녹아버리고 업는데 눈과더부러놀너왓다는 괴청년의 대답! 못고잇던 방호단원도 소름이 끼치엿다 누구일까? 지금우리가 차저가는 시체! 그시체와 청년은 판게가 잇지안흘가? 소인(素人)탐정기분에친 방호단원은 즉시이사나히를붓들어 가지고 동행하야 두사람울시켜 위선이청년을 돈암정(敦岩町)파출소에 대려다구검하여노코 다시 시체가 잇는 현장에 달려갓다

돈암정파출소에서는 즉시 이괴청년을 동대문서에 대리고왓는데 동서에서는 괴청년은 북악산괴시체사건의 관계자로 인정하고 밤새도록 엄중한 취조를 하엿스나 일체로 입을열지안코잇서서 일홈조차 알수업는형편으로서 날이밝기전에는 그가 과연 괴시체사건과 관련이잇는지 업는지 정체를 알수업다

現場巡視한 山林看守談

현장을 보고온 그부근 산림간수(山林看守)양구국(梁九國)씨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술이 취하야 떠러저죽엇다고하면 입이 지저분할텐데입이 깨끗하고 직다누러잇섯습니다 그러타고 독약을 먹고 자살을한 흔적도 업서보입되다 자살을하랴면누가 이치운데 그꼭대기까지 올라가겟습니까 굴러떠러저 죽엇다고하더래도 죽은현장이 아무구렁덩이도 아니요 또 고무신이 떠러저잇는곳과 불과 두어간밧게 안되는곳에 시체가잇섯스니까요 또 그우에 지세를 보더래도 시체가우에서 굴러떠러질만한곳이 아닙니다 더구나 시체미테떠러저잇는두루마기는 누구와격투하다 베겨진것처럼 발발이찌저저잇섯습니다 아직검시를 안햇다고 손을못댓다고해서 자세히 시체를헤처고볼수는업섯스나 오른손이 피투성이가 되여잇섯스며어쎗인지 바지우가 벗겨저서볼기짝이 나타나잇섯는데 안색과 볼기짝도 샛파나케 질리지안코서 혈색이 보통사람처넘되여잇는것을보건내 아마 죽는지 몃시간되지안흔것만은 사실일것입니다

따총

중앙구지에서 이번은 외교원이 수금을강령。

사창 전부가 잘허먹엇다는것보다는 소문이 덜창피하겟군。

어린애 외투벗겨 가는놈훗첩거던 속샷쓰를 벗길일。

○

장님이 눈뜨고 명어리가 말한다

이번엔굽새가 흥을 펄차레? 아니, 못쓸셔보지말고, 못꿈말하자말음。

今日天氣 晴雲不定

人權蹂躪의防止

要路當局에陳情

京城辯護士會總會의決議

누보ㅣ경찰편이 행정 집행령(行政執行令)을 남용하야 부당한 검속으로 인권을 유린하는것을 막고사 이대책을 협의하게된 경성변호사회(京城辯護士會)의 임시총회는 구일오후 세시부터 재판소 변호사실에서회원사십팔명의 참집하에 열렷는데 적미(赤尾)회장이 의장이되여 여러가지의견을 교환한결과 총독 법무국장 경무국장 고등법원장 고등법원검사장에게대하야 이문제에대한동경(東京)세변호사회의 결의와가튼 취지의 건의(建議)를하기로 결정하엿스며 실행위원으로 적미회장 윤(尹)완산(丸山) 부회장 서(徐)상의 편의상 중네명을 선거하고오후네시경에 페회하엿다 그런데 동경변호사회의 결의는

▲행정집행법의 남용을정지시켜 종래의페풍을 일소할것

▲피의자에게 자백을강요하야 폭력을 사용하는일이 업도록할것

▲구류(拘留)기간을 누차갱신하야 장기구류를 시키며실형(實刑)이상의 고뇌를 주어 허위의 자백을 하게하는일이 업도록할것

▲집법자(執法者)의 독선으로 국민을 떠나인권을 유린하는일이업도록 하자는것이 요점이다

玉川素人劇會美擧

시내 옥천정(玉川町)방호청년단 유지로조직된 옥천소인극회(玉川素人劇會)에서는 오는 십일 십이 양일간 매야칠시 봉래대강당에서 소인극공연의밤을 가지게되엿다는데 총수입은 국방헌금으로 사용하리다고한다 그리고 상연할제재와 관계자는다음과갓다하며 입장료금은 이십전균일이라고한다

故嚴俊源氏追悼會

부내창성정(昌成町)에 잇는진명녀학교동창회에서는 오는십삼일오후네시반에 박문사(博文寺)에서 전교장고엄준원(故嚴俊源)선생의 추도식을 거행한다는바 교우는 다수히 내참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昭和十四年度 ② 朝鮮氷上十傑

本社運動部編

三千米 (世界最高記錄4分49秒6 諾威 바랑그르ㅡ드選手)

(日本最高記錄5分4秒9 金正淵選手)

【順位】		【所屬】	【記錄】	【링크】	【競技會名稱】
1	片昌男	(新京)	5分28秒5	新京	日滿對抗
2	張祐植	(明大)	5分31秒0	同上	〃〃〃
3	尹寬植	(明大)	5分32秒8	同上	〃〃〃
4	方慶河	(新京)	5分34秒6	新京	〃〃〃
5	金河吉	(松都)	5分44秒2	鴨綠江	內鮮滿對抗
6	朴謂西	(撫順)	5分46秒8	〃〃〃	〃〃〃
7	金演集	(咸興)	5分51秒3	淸凉里	朝鮮神宮
8	柳得浩	(光成)	5分51秒4	〃〃〃	〃〃〃
9	任秉鎬	(新義)	5分51秒6	〃〃〃	〃〃〃
10	朴雲峰	(光成)	5分51秒7	〃〃〃	〃〃〃

五千米 (世界最高記錄8分17秒2 諾威 바랑그르ㅡ드選手)

(日本最高記錄8分47秒張祐植選手)

1	張祐植	(明大)	8分47秒0	奉海	全日本
2	朴謂西	(撫順)	8分57秒8	奉天	全滿大會
3	尹寬植	(明大)	8分58秒5	奉海	全日本
4	安龍熙	(明大)	9分6秒8	同上	〃〃〃
5	金健會	(新義)	9分10秒8	同上	〃〃〃
6	朴炸用	(明大)	9分13秒5	同上	〃〃〃
7	金永俊	(明大)	9分15秒0	同上	〃〃〃
8	金演集	(咸興)	9分15秒2	同上	〃〃〃
9	金相鎔	(明大)	9分16秒1	同上	〃〃〃
10	金河吉	(松都)	9分16秒7	同上	〃〃〃

一萬米 (世界最高記錄17分14秒4 諾威 바랑그르ㅡ드選手)

(日本最高記錄18分2秒7 金正淵選手)

1	張祐植	(明大)	18分41秒1	奉天	日滿對抗
2	朴謂西	(撫順)	18分53秒4	奉天	全滿大會
3	尹寬植	(明大)	19分16秒4	奉海	全日本學生
4	金永俊	(明大)	19分21秒9	同上	〃〃〃
5	方慶河	(新京)	19分35秒7	奉天	全滿大會
6	片昌男	(新京)	19分37秒5	同上	〃〃〃
7	金河吉	(松都)	19分39秒4	奉海	全日本中等
8	朴基峰	(光成)	20分18秒4	淸凉里	京平對抗
9	金相鎔	(明大)	20分19秒2	奉海	全日本
10	柳得浩	(光成)	20分42秒0	淸凉里	全朝鮮中等

講武館名譽師範 劉軾烈氏追悼會

경운정에잇는 강무관명예사범 유식렬씨추도회는 래십이일오후팔시부터 동관에서 거행하기로 되엿는데 유씨는 대정구년에동경강도관유도이단으로써 배재중학에서 이년간유도교사를 겸무한후 소화육년에 향리충남례산군에서 김광사업에 종사하다가 거월일일에향리에서 별세하엿다

無敵王루이스 로選手와對戰

지난달二十五日黑人同志의 세계선수권쟁탈전에서 나이트헤비ㅣ급선수권보지자 『존·헨리·루이스』를 이분이십구초에 『녹아웃』시켜 무적왕좌를 확보하고잇는 『조ㅡ·루이스』는 래四月二十四日에 『작크·로ㅡ빠ㅡ』선수와 十回戰을 『로스안젤스』에서 거행하기로되엿다 『로ㅡ빠ㅡ』선수는 過去十五年間의 拳鬪生活을 繼續하야 相當한力量을가지고잇다한다

鐵道局植田選手 共匪討伐中戰死 【鐵道局 發表】

작년칠월에 북지에출정하야 전투중이던 조선철도국 『럭비』선수 식전건일(植田健一)씨는 지난일월팔일새벽에 산서성향녕현(山西省鄕寧縣)에서 공산군과교전하다가 명예스러운 전사를하엿다

曆

▲二月十日(金曜)陰十二月二十二日 ▲干支 戊寅 ▲日出 午前七時三十分 ▲日南中 午後零時四十八分 ▲日入 午後六時六分 ▲晝間 十時三十七分 ▲月出 午前十時四十九分 ▲滿潮(仁川) 午前九時二十分 午後九時四十分

廣告

聯盟活動은活潑

平南道視察마치고 川島總裁談

국민정신총동맹조선련맹총재천도의지(川島義之)대장은 지난오일부터 평안남도관내 연맹의실황시찰하기위하야 출장중이던바 팔일출장을끗마치고 도라와서구일 다음과가튼 시찰담을발표하엿다

연맹창설이래 반년을지난 조선련맹은 방금각지에 애국반(愛國班)이 거진완성되여 드디어실제활동에 들어가고잇다 이실제활동의첫거름으로서 이번내지와 호응하야 총독부의시설과 손을 잡고 연맹창도아래 대대적으로 일본정신발양주간을 실시하게된 것이다 이때에 유선 각부읍면 부락을 차저서 애국반의 실제를 충분히 시찰하야 금후연맹의 제이제삼의 활동에 조호자료를엇고저하는것이 이번시찰의 목적이엇다

그런데 내가 예상하고 잇던 이상으로 각연맹의 실제활동은 여간 활발하지 안허서연맹원과 지도당국에 대하야 충심으로 감사를 마지안는다 이 지방은 그전에 기독교도의 신사 불참배문제가 이러난 곳이라고 들엇는 데 이번가서보니 연맹의 취지목적을 잘인식하야 황국신민으로서의 명예를 자각해가지고 솔선애국활동을 하면 종교상 이러한문제도 자연해소 될것으로미더젓다 그러나 연맹의 운동은 오늘햇스니 내일그결과가 나타나는것이아니므로불굴의끈기를가지고 정신으로 그실효를 내여가지안흐면 안될것이나 시국은 장기건설에 들어가서 국민의 각오를한층더 긴장하게하는 이때에 연맹의 목적달성은 황국신민으로서유일의 명사봉공의 큰길이라한다 언한다 금후다른각도로 시찰할예정인데 각연맹원의 꾸준한건설노력을 절망하야 마지안는다 (사진은 천도대장)

總親和總努力興亞의基

日本精神發揚週間 第③日

咸北線改修 年末에完成

조선철도회사의 경북선(慶北線)철도는 철도국으로부터 팔백육십만원으로 매수하기로되엿는데 조선철도회사에서는 이돈으로써 방금공사를 진행하고잇는 함북선(咸北線)의개수비로 쓰기로되엿다 함북선개수공사는 빨리하여가는터이여서 금년안에 전부준공하야 오는 십이월에는 광궤(廣軌)우으로 렬차를 운전하게될터이다

傳染病猖獗

一月中府內에百七十二名

엄동설한의 장아에서도 전염병만은 여전히 창궐하고잇다 지난정월한달동안에 경성부내에서생긴 전염병환자는 일백칠십이명으로 작년동기보다 오십일명이나 만허젓다 그중가장만흔것은 『지푸테리아』의 구십명으로 이것은 친절기에 어린아해들이 걸니기쉬운 병인만큼일반가정에서 주의할필요가잇다

쌀갑시또올럿다

경성부공설시장에서는 구일부터 쌀갑을 한키로 오리식올렷다 이것은 원료인 베갑이 대단 비쌀뿐아니라 품귀한 판게라고한다

多摩錦	特等	一키로	二七錢
〃	一等	〃	二六錢
普通	一等	〃	二五錢五厘
韓白米	〃	〃	二三錢五厘

慢性과惡性의淋疾이낫는다

淋絲와膿이업서지고아픈것도머저速히全快됩니다

豊山院藥部

松島教正

꼭낫는다! 肺病必治

無料 (內務省衛生局)編纂의 治療를가진文獻과나의全治된自宅治療法을가르처드리고또良藥을無代進呈합니다

억울重者勿望 더症라爲 한患도失

不眠症잇는분 每日瘦瘠하는분 胃腸이弱한분 頭痛나는분 倦怠症나는분 胸痛잇는분 關節炎이잇는분

기침이그치지안는분 밤에식은땀나는분 喘息되는분 咯血되는분 억개가무거운분

本人住所 東京市小石川區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內臟外科 一般外科 肛門科 レントゲン科

入院病室完備

京城府黃金町一ノ一九九(京電裏) 電話 本局(2)一八四八番(病院) 本局(2)七三七五番(自宅)

春季受驗期 洋藥全集(六百種)漢藥全集(五百種)見本進呈

洋藥漢藥 藥種商講義錄 革新版

京城蓬萊町三ノ七 朝鮮藥業研究社

希望의新 부터ㅣ씩씩함과 希望과健康을

中央體育研究所

고ㅣ무신修繕業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八四 大輪商會

文部大臣指定 卒業生의特典

日本女子齒科醫學專門學校

▼募集人員 百五十名 ▼願書受付十二月卅日ヨリ 校長事務取扱 醫學博士 河合

失業은技術家께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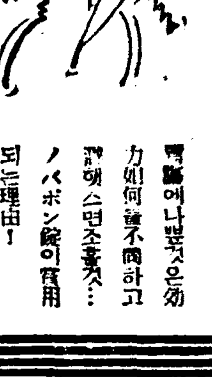
公認 東京寫眞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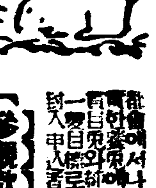
東京品川驛前

校長 沖貞男

中野高等無線電信學校

東京市中野區江古田





銀狐兎、안고라兎

緊急處分大投賣斷行

【參觀歡迎】 廣島縣安佐郡龜山村 龜山養兎研究所

辭典拾冊合本タッタ一圓卅錢 各冊は四十錢

法律百科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字くづし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五分間演說辭典 社交常識辭典

緊急處分大投賣斷行

特別景品無代進呈 模範日記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緊急處分大投賣斷行

●定評ある!詳解漢和大辭典!

緊急處分大投賣斷行

定價三圓八十錢をタダの一圓卅錢で大投賣す!

千五百頁大冊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局區內西町 合資會社 國民書院東亞係 振替大阪五五六貳壹番

中部版

府內住宅의月貰調査
和式은先着手朝鮮式은追後로
住宅難緩和對策樹立에基本資料

경성부에서는 심각한 주택난에울고잇는 부내의 실정을 조사하야 대책을 수립하는 기본자료로하고저 오는사월부터 약삼개월동안에 걸처 판공리, 회사, 은행원, 학생들을 동원하야 오만여호의 방대한 주택조사를 하기로되엿거니와 본격적 조사에 압서 부사회과에서는 부청직원으로서 일본집에 세로잇는사람의집세를 일일팔 현재로조사하엿다 조사호수 이백오십팔호중 건평삼천칠백평십륙평!! 다다미총수사천이백팔매로 한달집세총액양육천원인데 건평한평에대한 집세는 한달에 최고이원칠십팔전, 최저칠십이전으로 평균일원오십칠전, 다다미한장에는 최고이원륙십륙전 최저육십전 평균일원사십오전으로 부영주택의집세평당평균 칠십이전, 다다미한장평균일원륙전에 비하야 엄청나게비싼데 놀나지안흘수 업다 조원중 조선가옥의 집세는 게속하야 조사하기로 되엿는데그 결과는 흥미를 끌을게한다

이번조사결과 집세비싼곳으로다 다음과갓다(수짜는다다미한장한달집세평균)

◆旭町 一圓三三錢 ◆孝子町 一圓八錢 ◆通義町 一圓四錢 ◆權上町 一圓 ◆西界町 一圓九三錢 ◆鋼路 一圓九〇錢 ◆南山町 一圓八四錢 ◆北米倉町 一圓八一錢

水原에굿盛行

【水原】다른지방도시에 비하야 문화시설로 뒤떠러저 잇다는것은 누구나 잘아는사실인 수원에 가장 풍성히 해하고 잇는 갖종의미신은 요사히 음력세말이 임박하야 더욱 기세를올리고 잇는중에도 무당의 소위굿은 근래에서도 마음대로 하는모양이다 어는 총후의 국민으로서더욱 국민정신총동원을 부르짓는 이시국하에서는 국민으로 삼가야할동시에 경찰당국으로서도잇 따위 미신은 단연히 금지시켜 주기를 일반식자간에서 매우바라는바이라한다

山猪群의討伐隊
第一日에三頭를銃殺

【抱川】포천군청산면 대전리(抱川郡青山面大田里)에서는 지난삽일에 산도야지세마리를 한꺼번에 잡엇는데 각가일백육십근가량씩이나되는 큰 도야지라한다 그런데 동리사람의말을 드러보면 근년에는 전년에업던 산도야지떼가 때로는 이삼십마리씩 떼를지어 주야로출몰하야 자주 횡포하므로 해마다 부근일대에 농작물에대한 폐해가막심한판게로 대전리의 주민들은 크게근심하야 산도야지 박멸을해볼려하야 오던바 지난 이일에는 경성부창성정(京城府昌成町)사는 박부성(朴富成)이라는 엽사를마저 주민들은 기뻐하야 산도야지 토벌대를 매저 가지고 박멸공작에 동정하엿던바 제일일공작에 신산부일대를맛나 그중에서 세마리를 한꺼번에잡아 가지고 유쾌히놀아왓다는데 아프로도 계속하야 박멸공작에매진하면 상당한수확물이잇스리라고한다

七名酒黨共謀
六百餘盞을鯨飮
無錢取食後에逃避

【開城】부내궁정(宮町)사백칠십일번지 고영준(高永俊)외 여섯명은 지난일월이십칠일 남본정(南本町)사백칠번지 김성복(金成福)의 술집에서 돈은한푼도안가지고서 현금이백원은가졋스니 밤새것 술을먹겟다고 허풍을떠려가며 동일오후한시부터 그이튼날 오전세시까지 주역다섯시간동안에 술육백여섯잔을 마시고 도다중엔 돈은 함께계산할터니 지나요리까지 시켜다달래먹은후 이들은 오십이원이십일전이나되는술갑 요리갑을 한푼도안내고 도망갓스므로 전기주인은 지난칠일 고영준들이 개성서에고소를 제기햇다고한다

少年의獻金 (金浦)

【金浦】김포군하성면오정동(河城面梧井洞)소년단에서는 작년여름에 성엽사김포농장(成業社金浦農場) 소유인 무지 삼백여평을 어더가지고 집오세미만의 아이들이 그황무지를개간후 벼를시며 약간의수확이잇섯더바 그를조우와서파라가지고 지난육일에 십원이십칠전을 국방헌금으로 보내달라고 하성면장에게 기탁하엿다

國防獻金

▲부내 욱정(旭町)일정목 일백구십번지 심재영(沈載榮)은 구일아침에금십원을 용산서를 통하야 국방헌금하엿고

▲부내 원정(元町)일정목 일백삼십일번지 부전정심(富田淨心)은 금오원을 구일아침에 용산서를 통하야 국방헌금하엿다

開城의兩大市場
賣上高五十五萬餘圓
肉類와蔬菜의需要가首位

【開城】개성부내 이대공설시장인즉 도교시장(都橋市場)과 당교시장(堂橋市場)내에서 작년일년간 팔린각종식료품 매상고는 오십오만구천삼백십륙원으로 작년보다 겨우이만삼천팔백십오원의증가를 보엿다한다 각종을까가오할시활로 폭등된이때 이가티작년과 큰차이가 업는것은즉 식료품은 군수품과는 다른판게로 올라때야 평균일활이내인때문이라한다 그러나 그중중요한식료품매상고 남소개하면다음과갓다

▲鳥類肉類=十二萬九千三百三十一圓 ▲蔬菜果物=十一萬九千四十七圓 ▲海產物=七萬三千二百五十六圓 ▲穀物類=六萬八千九百九十二圓 ▲乾物類=七萬一千三百九十二圓

朝鮮酒販賣統制로
得勢한淸酒正宗
江華飮酒黨의不平漸高

【江華】양조장들의에반하야 업자의보와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야 당업자간에 경쟁적마찰을 피하야써 그부정을 원만히하고저 수년전부터 인천세무소관내에 주조판매주식회사(酒造販賣株式會社)라는 통제기관을 신설하고 이래 주조업자간에 절충을 하야오던결과 다소의효과는 잇섯스나 도무지 품질향상에잇서는 그반대방면으로 악질화한과 동시에 판매상태에잇서도 수용자의수용에 어쩌할수업시 구역현정을 월범하야 판매경쟁에나아갈파아울러 업자간에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갈등이심하야왓던바 지난달에 다시 업자들은 그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기관에서도 의압적으로 법규를 만들고 판매구역을 회복함과 동시에 달연 술을 수입치 못하도록 하기로 하고 그 시행에 잇서는 오는 십월말로써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그러나일반 음주당은 누구나 일대 반기를 노리드는바 그원인은 당해구역에 주조장에술은맛이 업서 못먹을 지경이고 그러라고 타처에 술은 수입치못하게되므로 울고 게자먹은세음으로 할수 업시 청주정종(正宗)을 먹을수 밧게 업시 되는 반면조선주의 갈곳이 어대이냐!는 반면 청주의 등장은 아프로 성할만큼 업자의 타격이크리라하며 업자간에는 품질향상에 적극노력을 하라 고하나 그정도가 문제이만큼 강화의 일반음주당은 금반 구역제한판매에 잇서 극반대타고한다

有志가後援會結成
昇格實現에邁進
仁川商業專修學院에曙光

【仁川】십일만부민을 포용한인천에 중등학교가 몃것되지도안흐며 민간의손으로 설립된 중등학교가 업는중 작년여름에설치된 인천상업 전수학원(仁川商業專修學院)은 금번인천의명망가 지종호(池宗浩)씨가 내어노흔 유천오백원이 (송적기본금이되자 부내의 유지여러분이다투어가며 이학원의 승격을위하야헌신적 노력을하고잇는데 김윤복(金允福)씨를 비롯하야 그학원설립자로 김세완(金世玩)김종섭(金鍾燮) 이홍선(李興善)유군성(劉君星)씨등다섯분이 각각금액을 자담하야 기본금으로수천원씩 지출키로되고 후원회를 조직하야 그재단을 완성시켜서 교사를 증축시키는 일방현재의 상업전수학원을 을종상공전수학교로 (승격시키기로하고 내년에 실현될 이학원의 중요한 학과는 공과에는 전기과(電氣科)토목건축과 (土木建築科)철공과(鐵工科)를두고 상과는 갑종상업학교의 과정을가르치리라는바경영란에 빠지엇던 이학원도진춘을마지하며 서광이 비치여잇스

말성만흔薪炭商
開城薪炭市場을團束
賣買證업스면市內出入不許

【開城】개성부신탄시장은 철도국용지를 차용한것이 금번경의선복선기지로 이용케되엿스므로 부당국에서는 시내와 좀떠러진 사직정(社稷町)오정문(午正門)부근에 일천백여평의 시장부지를 매수하야가지고 요지음 신탄매매는 반드시 이시장에서 만하도록한다는 금족령을내리는동시 만일부내로팔려가는 나무장수는 시장감독의 매매증서나매수자의 증명서를가저야만된다고 엄령을내리고 취체를하야왓섯다 그런데 전기새로생긴 나무시장은 그거리가부내와 너무 떠려저서 종전가티 나무를사려오는 손님이적고 또는 음식점이라고는 떡집하나업서 요기조차할수 업스므로 이들나무장수는 허위매매증명서를 만들어가지고부내로만 몰려드러 배회하게되여현시장은 고만 유명무실하게된바 이번 개성부에서는 그취체방법을 경찰서와협의한결과 금후로는 시장감독의 매매증명서나도는매수자로부터 파출소에 매수증명서를마려 주어야만 시장문밧을 나오게되엿다한다

開豊郡十三戶
四月中旬渡滿

【開城】만주개척민은 넓다ー농터가 질편한 이땅에가서 농사를 지여가지고 주린배를 채워보자는 희망에서 작년봄 개풍군에서는 오십여호의 이민부대가이미 간도로 떠나가살거니와 금년에도 춘기집단이민(春期集團移民)으로 십삼호가 떠나기로 결정되엿다하며 떠날짜는날사월중순경이라한다

遞信局紀元節節次

십일일 기원절에 체신국의봉축식은 오전열시반부터 체신사업회관에서 체신부내고등관, 우편국소장등이백여명이모혀 궁성요배, 조서봉독들한다음 별실에서 간소한축배를올리고 만세삼창으로 엄숙히거행하기로되엿다

西橋町會서도
愛國班結成式

【延禧】시내서교합정당원정회에서는 그간국민정신총동원 애국반조직의 준비공작을 마치고지난이월칠일오후세시에 정련명에 국반 결성식을 서교정예수교회당에서 정민다수참석 부윤대리로써 경성부공산출장소 호적계주임원의국(元殿默)씨와 임석한후 당정총대김리사장(金理事長)의 엄숙한사회와 처지설명이잇슨후 순서에의하야 원만히거행하고 동내시반에결성식을 무사히종료하엿다

女子過剩五千名
살림꾼老處女도多數
性別로본開城人口의不均衡

【開城】개성부 호적계에서 작년연도말에 조사한 인구는 유만팔천오백 육십오명인바 전년도인구와 비교하면 삼천팔백명의증가를 보엿다 이것을 다시 남녀별로보면 개성을 갓고잇는바 주남자보다 여자가 오천얼백팔십삼명이 더만흔 기현상을 드러내고잇서 결혼적령기(適齡期)에잇는 노처녀는 상당히 만흐나 줌처럼 신랑갑은 구할수 업다고 딸둔부모네들은 모두들 고민하고잇슴으로 사실이라한다

悲運의永明學堂
東西에分離教授
根本的救濟策이緊急

아칙아홉시가 가갑게되면 찬바람에 부대껴빨아케 얼은두뺨을 장갑도끼지안혼손으로 어르만지면서 공덕정(孔德町)마루턱으로 허덕이며 올라가는 어린학동들이잇다 산술책, 국어책에다 공책을포개서 두르르마란 책보를 무슨무거운 짐이나되는드시 여페도끼엇다가 들엇다햇다하며 언덕으로언덕으로 기어올라간다 여기가 공덕정에서도 그중노픈 산마르턱에 잇는 대현예배당(大峴禮拜堂)이다 이예배당속에서는 찬송가 아닌찬가 소리가 들리며 성경읽는소리대신 국어독본읽는소리가 흘러나온다 귀여운복소리다

지난해십이월어느날이다 만십년이란 오랜역사와 전통을가진 청엽정(靑葉町)영명학당(永明學堂)이 돗자지안흔 화재를 만난후 이백여명의 어린학동들은배움의전당을일코 가두로 방황케되엿든것이다 그후원장 강준의(康俊義)씨와 교원들의노력으로인선 급한대로 교실대신빌어쓰게 된것이 이예배당이다

◇……◇

상학종대신 호각을불면 고만한 학동들이 아몹다투어가며 찬마루바닥을 벼아리떼모양으로 몰려든다 마루우에다가얄다란 돗자리몃닙까리노흔 마루바닥이 오직자리! 돗자리가운데다 화로불만도 못한조고마한 난로한개가노혀잇슬뿐이니 밥은얼마나 실이겟스며 손인들오직실이라만 이귀여운학동들은 눈하나깜작아니하고 선생님의얼굴파손가는대로만처다보고잇다 일백이십십명이나 되는학동들이한가운대다 회장옷처서 새를두고좌우로 갈라안젓다오른편이 일학년이고 왼편이 이학년생들이다 선생님이 한아이에게 무엇을물으면 제비떼가티 두손을 들고 제각기 잘안다는드시 대답하기를 자원한다 내가잘압니다 제가대답하지요 하드시! 이얼마나 아들랍고 귀여운장면이나! 이명의장내의일군은 여기서도 무럽무럽 자라고잇는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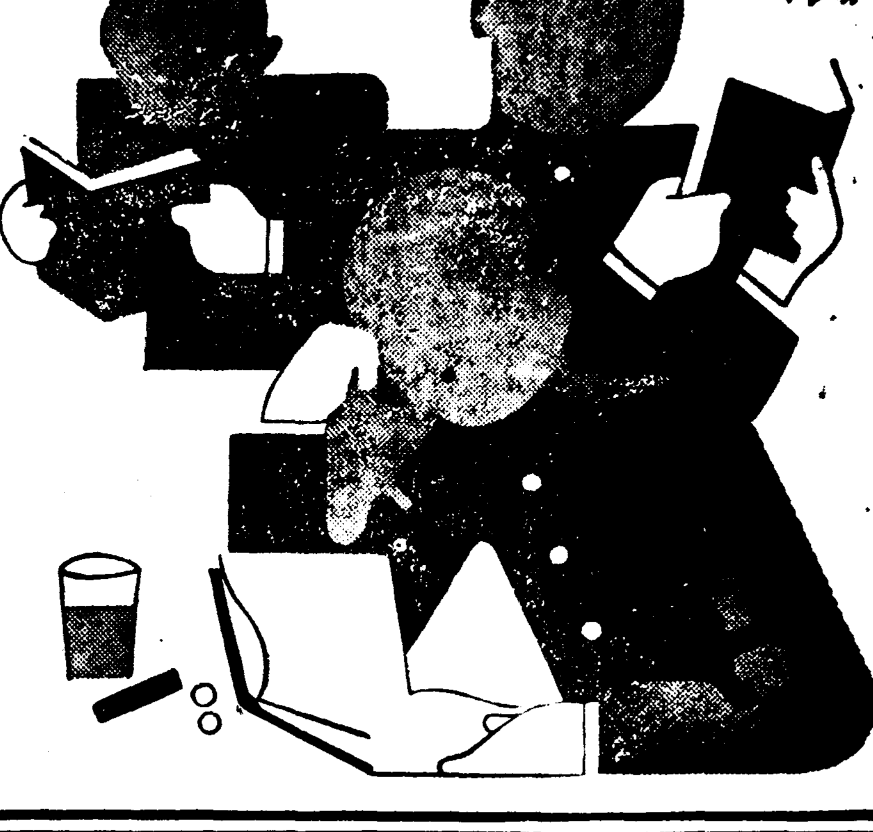
화재가나기전의 학동수는 사학급에 이백명가려되던것이 임시교사를사용하뒤부터는 미처나오지를못해 수가적어젓스나 그래도 일백칠십여명의 학동들이 몰려들어서 현재 선생여섯분이 번가라가며 가르치고잇다 일이학년생은 대현예배당에서배우고 삼, 사학년생은 청엽정에잇는 원장강준씨댁 이층에서 화로를하나를노코 아침부터 낫과밤으로 배움의길을닥것고잇다 한편은 책상업는마루바닥 한편은 다다미바닥에서 씩씩하자라나고잇다 들으니 원장과여러선생들의노력과 성의는 마치내일리전한바되어 이불우한 학원을위한 의연금이 뒤를이어 답지하고잇서 신축에는 기지를어더서 교사를 신축하게된다하니 얼마나 기쁜소식이나 동학원의 재건되는날을 기다려마지안는바이다

(사진은 두곳에 난호은학동)

受驗生必携

ノーシン

好評의 頭腦藥



試驗이다!

疲勞한頭腦로 失敗치마라

試驗이 마침내切迫! 英數國漢地歷等 밤을낫을 삼아 猛工夫를繼續。 그에따라頭腦는 疲勞하고 납덩이가티 무겁고、 머리속이 직근직근 아푸고……그結果는 思考力이 統一되지안코、 공연히 焦燥할뿐입니다 이런때에는 곳 ノーシン을잡수십시요 흐리터분한頭腦를 一掃키爲하야 그래서 明朗한頭腦와、爽快한 氣分으로 滋味잇게 工夫를잘 해주십시요。

ノーシン의 優秀한 點은……

다만頭痛과頭重을 速히업샐뿐아니라、更히一步나아가서 疲勞한 頭腦의 疲勞를 恢復하야 頭腦를明快케하는 獨特한 藥効를併有해 잇는것입니다。 그리고 常用하면 神經의榮養을 조케하고、心臟을强補하는것은 效果가잇는故로 날마다 頭腦를酷使하는 學生諸君은 勿論、一般現代人의 日常必需藥으로서 好評입니다

主效　頭腦疲勞·腦內[illegible]　頭痛·頭重　心氣倦怠·精神變調　上氣·眩暈

三十錢·五十錢　一圓·二圓　全國藥店에잇소

製造發賣元　荒川長太郞合名會社

純情의微笑

힌百合과가티 氣品잇는 고운살결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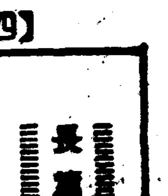
特長
一、잔주름과뽀로지를 解消합니다
二、化粧하시는데는 粉을잘먹게하고 찍어리가게합니다
三、바깥양반의 面刀하신뒤에 거치러진것을 防止합니다

レートクレーム

長篇小說

薄命 (201)

韓龍雲 作 鄭玄雄 畵



말로 二五

집으로 도라오는 순영이는 대철이가 어찌되엿나하는 생각이 조마조마하얏다 대철이 주사맛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세시간이나 느젓다 세시간은 고사하고 한시간도 견디지 못하야 죽는 신음을 하면서 주사를 노하 달라고 졸라대든 대철이가 그 사이에 어찌되엇나 하는 염려로 발보다 머리가 압서게 빨리와다 순영이가 안마당에 들어설 때에는 발 자최를 죽이고 방안의 동정을 살펏다 방안은 죽은드시 고요하엿다 순영이는 가슴이 선듯하엿다 기침을 가볍게 하면서 마루에 올라섯다 그러나 발자최 소리는 나지안토록 주의하엿다 그래도 방안에서는 그러케 그렁거리던 숨소리조차 업섯다 순영이는 문 고리를 잡고서 숨을 죽이고 들으면서 활락 열지를 못하엿다 그래도 방안은 여전히 잠잠하다 순영이는 다시 기침을 하고서 문을 살금이 열면서 드려다 보앗다 대철이는 팔을 이마에 언고서 반드시 누엇는데 입 아귀에는 거품을 흘린 흔적이 낭자하다

『주무서요?』

하면서 들어서는 순영이는 대철이를 드려다 보면서 워선숨기척이 잇고 업는 것을 살펏다 대철이는 아무 대답도 업고 터럭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엿스나 엿 수염이 흐들리는 것으로 보아서 숨을 쉬는것은 확실 하엿다

『주무서요?』

순영이는 비로소 마음을 노흐면서 가까히갓다 그래도 대답이 업다

『주무서요?』

순영이는 소리를 노피면서 손을 대철이 코미테 대여보곡 콧김은 더웟다

『누구요?』

대철이는 다죽어가는 소리로 허를 분명히 채지 못하면서 눈은 그대로 감고 잇는것이 채 숨이 떠러지지 아니한 송장가치 뵈엿다 순영이는 빨리 건넌방에 가서 주사약을 가저다가 한방을 주엇다 조금잇다가 기운을 돌리면서 눈을 떠보는 대철이는 순영이를 보고서 못마땅한드시 도라누을 뿐이다

『그새 시간이 너무 느젓지오?』

순영이는 미안한드시 말을 하엿스나 대철이는 대답이 업다

『시장하시지 안허요?』

『……………』

『저녁하기 전에 무엇좀 가저올까요?』

『어치괴 죽을놈이 무엇을 먹어선 무엇하게!』

대철이 말은 평탄지 못하엿다

『잠깐 다녀 온다는것이 조금 느젓서요 웨 화가 나셧서요?』

『흥유!』

하고 일어안는 대철이는 머리를 집고 눈을 감은채로 안젓다가

『내가 여기 잇다가는 지레 죽을테니까 나가다 죽더라도 다른데로 가야겟소』

하고 일어나서 두루매기를 입고 모자를 쓰더니 터퍼노코 비틀거리며 나간다. 순영이도 대철이가 자기의 업는 사이에 주사마질 시간이 조금 오래되어서 얼마나 애를 쓰다가 마침내 역정이 나서서 하는 행동인줄을 알면서도 자기도 너무나 괴롭고 대철이 하는 짓이 알밉기도 하여서 나가는대로 가만히 내버려둘까 하고도 생각을 하엿스나 대철이의 비틀거리고 나가는 꼴이 면밧자욱을 떠노치 못하야서 쓰러질것 갓고 어떠케던지 어디로간다 할지라도 고수룬 하는 사람이 업서는 며칠이 못되어서 죽을것 가텃다 그러다면 대철이 죽는것은 곳 자기가 죽이는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차마 그대로 둘수가 업섯다 그것은 물론 안해로서 남편을 섬기는것은 아니고 또 무슨 손톱만치라도 장래를 바라는것이 잇서서 그러한것은 절대로아니엇다

『이것보서요 이래가지고 어디를 가시오 들어가십시다』

대철이를 부축해 가지고 들어가는 순영이는 남보지 못하는 사이에 흑연히 눈물을 흘린다

今週映畵

黃金座—팔일부터『페-야』감독의문적교향악(嵐城交響樂)과 입활정도작품 阪東妻三郎주연의『주마상(馬喰)』그리고일활의『주어의언덕』을 동시상영

若草劇場—십일일부터 신일하로만족솔리앙·듀비비에』의『페페·르·모코』(望鄕)와 [illegible]부터 리처드·알렌과 유니버살의『戰友의노래』와 동보의『重巒의闘女神』을 동시개봉한다

明治座—십이일까지 메트로의『테스트·파이로』를속영하고 동시 예술대선작품『女性의차홈』을상영한다

(사진은『망향』의『장·가방』)

海外短信

紐育批評家選出의 三八年度베스트

뉴-욕 신문비평가단(批評家團)은 작년(일구삼팔년)도의 다음과가튼영화 베스트를선출발표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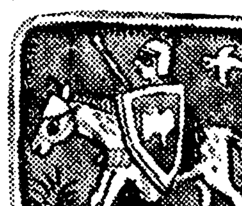
作品 米메트로映畵『城砦』

男優 와-너映畵『때묻은얼굴의天使』의젬스·캬그니

女優 메트로映畵『세동무』의 마-가레트·설라반

監督 런돈필름의『뒤·레딕-바니슈즈』(쫏겨난婦人)의『압프레또·히치콕크』

스페리틀映畵RKO提供『白雪公主』



『管絃樂』(十日後八、○○)

交響曲

第一○二番 B變長調 —하이든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요-제푸·로-젠슈톡

교향곡의대왕이라하는『요-제푸·하이든』은 一七三二년三월三十一일의밤『오-스트리아』에서나서 一八○九년五월三十一일『윈』(維納)에서 세상을떠낫습니다 그는빼네편의 교향곡을지어 후세에 모범을보엿슬뿐아니라 그형식의완성자로 음악사상 가장중요한지위를 차지하고잇습니다 이곡은 그가一七九一년과 九四년두번에걸처『런던』에서 연주회를 열엇슬때지은 十二곡—이十二곡을 보통『런던』교향곡이라 부릅니다—중의하나입니다 그의 만년을꾸미는대표적걸작으로『하이든』의전부를 나타내는 작품이며 이곡이 일본에서 연주되기는 오늘밤으로 처번이되는것입니다

九日(木曜)

◇午前七時五○分 宮城遙拜 (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正午(東) 時報
◇同一○時三○分 氣象通報 日用品市勢
◇午後零時五分(東) 管絃樂(레코-드)
◇同零時三○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學齡어린이의健康(四)視力이야기 醫學博士 申 〇雨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童話
一、齊唱 누가누가잘사나 二、同 고드름 三、獨唱 시골길 四、合唱 솔불밋 五、齊唱 은행나무아래서 六、獨唱 강아지래요 七、齊唱 고기양과떼우고 八、同 저은별 九、重唱 돌새 十、齊唱 어머니가슴 十一、달마중 伴奏 金永禎 銀방울會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分 復習時間『國語』(一○) 市川 榮三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分 講演—日本精神發揚週間第二日『時局과日本精神』 安 寅 植
◇同八時 (東) 베이올린獨奏 鶴淵 賢舟
◇同八時三○分 野談『西山大師』 申 鼎 言
◇同九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一、伽倻琴散調 二、倂唱 나 三、唱劇調 春香歌中御使南原나려가는데 吳 太 石 丁 元 秋 鼓 變
◇同九時三○分 뉴-스解說
◇同九時四○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時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時一○分 레코-드音樂

二月十日(金)

◇午前七時五○分 宮城遙拜 (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
◇同一○時三○分 氣象通報 料理獻立 日用品時勢
◇正午 (東) 時報
◇午後零時五分(東) 멘돌린合奏 日本기타-맨돌린協會
◇同零時三○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朝鮮菓子의製造』 金 和 仲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復習時間『算術』(十二) 安 興 奮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分 라디오時局讀本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分 講演—日本精神發揚週間第三日—『武士道로본日本精神』 張 德 秀
◇同八時(東)管絃樂 交響曲第一○二番 B長調 하이든作曲 第一樂章 라르고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 第三樂章 메누엣트 第四樂章 프레스트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요제-프로-젠슈톡크
◇同八時三○分 野談 金 灑 雲
◇同九時 京畿歌謠 一、赤手單身 二、靑春歌 三、사발歌 五、노래가락 六、唱婦打鈴 崔 成 月
◇同九時三○分 뉴-스解說
◇同九時四○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時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時一○分 初步國語講座 (二二) 宋 今 璇

二月十一日(土) 紀元節

◇午前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正午 (東) 時報
◇午後零時五分(東) 獨唱과合唱
◇同零時三○分 뉴-스
◇同一時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산아위 四、굿거리 李金錦 金成采 韓泰俊 弘
◇同一時三○分 大朝主催女子中等學校音樂大會—京城府民館으로부터中繼
◇同四時 뉴-스
◇同六時 合唱 一、君ケ代 二、紀元節 三、流星 韓泰泉詩 金尙權曲 四、눈 金尙權詩 文部省選定唱歌曲 五、가을시내 李求朝詩 金尙權曲 六、御國を守れ 大竜球隊詩 비音曲 괴아노伴奏 金尙權 梨花女學校合唱團
◇同六時二五分 講演『聯盟員에告함』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總裁 陸軍大將 川島 義之
◇同七時 뉴-스·天氣豫報
◇同七時三○分 管絃樂 一、愛國行進曲 二、日本靑年歌 三、若人よ 四、行進曲勝利の旗 五、さくらさくら 六、行進曲勝利の父 七、皇國精神にかへれ 八、日丸行進曲 九、海ゆかば 京城放送管絃團 指揮 坂
◇同八時 雅樂—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一、壽日和之曲(合樂) 二、昇平萬歲之曲(管絃樂) 三、萬年長歡之曲(管絃樂) 李王職雅樂部員 指揮 雅樂師長 咸和鎭
◇同八時三○分 野談『仔詳스러운政丞』 吳 祥 根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朴 綠 珠 鼓手 韓 成 俊
◇同九時三○分 뉴-스解說
◇同九時四○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時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時一○分 레코-드音樂

讀者談話室新設

조선의연예계와『라디오』와가라일반오락취미에잇서서 갈수록 관심과 흥미가 점점더풍부해지고잇다 그러한면에 이에대한일반의 기대와희망과 불평도 적지아니할것으로 생각된다 궁금한것도잇스려니와 이래서는안될것도잇고 또이러케는 당연히개량하여야하겟다는 점도한둘이아닐줄안다 이제독자담화실(讀者談話室)을새로두어서일반의솔직하고도 정당한 의견과 소감을 공개할기회를지으려고한다 일반대중의기탄업는 의견의진술을 바라는바이며 해답을 요하는질문에대해서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게재하고저 하는바이다

(投)(稿)(規)(程)

一、範圍……映畵、演劇、放送、其他娛樂、趣味에關한것
一、內容……以上의範圍에限하야 希望、不平、不滿、所感
一、宛名……朝鮮日報社學藝部『讀者談話室』
一、用紙……官製葉書一枚에簡單明瞭하게쓸일
一、注意……一切人身이나 集團에對한攻擊、非難은絕對로禁함

朝鮮日報社學藝部

梅毒退治에는·베루쓰丸

하루라도速하면

十倍나百倍식

有利한梅毒根治法

▲사람의몸을內部에서부터破壞시키는무서운梅毒菌▼

사람의몸을 그內部에서부터파먹는病菌이잇다하면누구던지깜작놀내며몸서리칠것입니다 그러나 실지에잇서서는 그와가티무서운病菌은 세상에얼마던지잇습니다 즉 페스트菌、호열자菌、세뿌라菌、結核菌、梅毒菌等이그와가튼것이고 이病菌은

사람의눈에는

보이지도안는 무서운 細菌인데도한번사람의몸에潛入한즉 작고작고번식하야 血液을탁하게하고 組織細胞를破壞하야서 사람의몸을內部에서부터결단내고잇습니다 그러치만 세상사람들은病勢가急迫하는 페스트菌이나 호열자菌을듯는것은 아조무서워하며 또한 慢性이라도結核이나 레푸라와갓는病은실혀해도 梅毒은무슨까닭으로

무심히여이며

治療를게을이하는지 세상사람들의心理를理解하기어려운일입니다 레푸라의根治藥은 아직까지도完成되지못햇스나 페스트나호열자는充分한豫防法도되여잇고 不幸히死亡한다하드래도 그사람한대뿐으로고만이고 結核도대개는新鮮한空氣와營養과安靜을主로하고 治療하면 낫게할수잇다는것은지금은누구던지잘아시는사실입니다

그러나梅毒은

根治할만한醫藥이完成되여잇는데도 여러분이게을이하는까닭으로 病毒을全身에퍼치고 여러가지悲慘한結果을當하며 아무罪업는子孫에게까지 遺傳시키는것입니다 그러나 이病에는『베루쓰丸』파가티조흔藥을 하루라도速히服用하면 十倍나百倍의有利한効果를어더서根治할수잇습니다. 그러고 梅毒은 世界各國에는다잇서 勿論하고

업는나라가

업지만 其中에도滿洲와朝鮮地方에더욱만히잇는原因은衛生施設이不完全한까닭이고 그보다도더욱 醫師의處置는것은 病者自體가病에對한理解가不足하야서 治病을게을이하게되므로 病毒은점점더盛하야서 他人에게도傳染되고 子孫에게도작고遺傳되므로 患者가만허지는 큰原因이된다고생각합니다。이病은 男女老少를말할것업시 누구던지걸리고

한번걸리기만

하면 좀처럼낫지안흘뿐만아니라 무서운毒을 우리人間에게주므로治療는速히、藥은信用잇는藥을쓰지안흐면안됩니다

이病에걸인사람은 하도만허서或어떠무지한靑年은 一平生에男子로태여나서 이러病에한번은걸이지안는것은 드문일이라고하며病에걸여잇는것을 아무러치도안케생각하는 어리석은사람도만습니다、이病을그대로두면自己一身만苦生을하는것이아니라

他人에게傳染

식히고 子孫에게도遺傳식혀서큰罪惡을사케되는것이나 다름업고 내종에는 이病으로하야 一生을버리게까지되는사람이 여간만치안습니다。內務省統計에依하면 梅毒으로하야죽는사람의數字가意外에만타고發表되여잇습니다、그러나이梅毒은絕對로못고치는病이안이니 하루밧비全日本에서好評을밧고잇는『베루쓰丸』을服用해보시기바랍니다 이藥은 일즉이東京帝大醫學部敎授로잇던 獨逸醫學博士베루쓰氏가 日本에와잇는동안에 우리日本醫藥界에남기여준梅毒專門內服藥이므로 藥効는더말할것업시六○六號注射와갓치服用한지數日이지나지안허서 全身에藥効가퍼저 梅毒菌을죽여서 大小便으로나오게하는作用이强하므로 血液이淨化되여血色이조와지고頭腦가明朗해지고 全身에元氣가生하야食慾이늘고 아무러런지『베루쓰丸』을服用하시는분은 누구던지 그効果가조타고칭찬하시며 다른사람에게도작고宣傳해주시므로 더욱有名하게됩니다。이藥은 各地有名藥店과百貨店에서도販賣하오니 하루밧비服用하시고梅毒을根治식히시기바랍니다

梅毒과體毒 便秘와皮膚病에

ベルツ丸 (베루쓰환)

SUZUKI NIPPON-SEIYAKUSHA

(主効) 男女의梅毒、胎毒、瘡毒、横痃、淋毒、腦梅毒、遺傳梅毒、痔瘻、류마치스、冷毒、動脈硬化症、惡性皮膚病 여드름、便秘症等에良効함

(藥價) 二十日分 三圓 一百六十日分(得用) 二十圓 / 三十日分 五圓 二百六十日分(家庭用) 三十圓 / 七十五日分 十圓 送料 鮮滿 各四十二錢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 淸二 振替東京五番・電話浪花八十番・九十番

代理店 京城・新井藥房・鍾山・大黑南梅堂 京城・木村藥房・鍾山・藤田藥房

戰線銃後の精神彈藥 キング

躍進三月號出づ

壯烈・戰車隊奮戰談

軍神西住大尉始め、幾多將士の壯烈血涙の活躍を見よ!

細見部隊長 陣中感話

軍神西住小次郎大尉を生んだ、武勳燦として輝く細見戰車隊!その隊長自らが血涙と共に語る西住戰車の活躍を始め、神兵の奮戰激闘!眞に血は沸き熱涙は頰を流れる。

千人力・萬人力…傷兵保護院總裁 陸軍大將 男爵 本庄繁

▲何か考へさせる人々…教育家 泉道雄
▲思ひ出しては吹き出す話 八篇
▲私の感心してゐる人の話…三名家
▲無駄を省いた実例…太平生命庶務課長 松本伊勢之丞
▲愉快の王國 キング大娛樂園 (面白いものなら何でもござれ!大評判の色紙頁)
▲一行智慧袋 ▲面白稀統計 ▲漫畫考へ物五題(オフセット印刷) ▲僕のメモより—菊池寬
▲キング笑話選 ▲精神彈藥の威力 ▲一問一答常識大學 ▲科學ニユース
▲分かり易い論語の話 文學博士 宇野哲人

隨感隨想 [illegible]

畫報 ◎名士出世アルバム ◎時局寫眞畫報 ◎博物館めぐり ◎愛中の戰車 ◎別れの氣房 ◎銃後の老母

現代小說 若い力…川口松太郎
現代小說 日本の妻…竹田敏彦
股旅講談 木曾の勘八…神田越山
諧謔小說 嫁取り双六…佐々木邦
時代小說 魔粧佛身…吉川英治

現代小說 愛憎の書…菊池寬
人間の生涯を貫く愛と憎の心理を描いて深刻!
貧しきが故に侮辱され續けてゐた少年が、今は戀知る青年となつた。侮辱した少年、共に、そしてこゝに展開するものは何か?之ぞ大抱負を以て物せる戀愛讀本であり人生讀本である

問題小說 國難…加藤武雄
雄大の構想!獨歩の名文!忽ち文壇讀書界の話題席捲す!!
執權北條の政治衰へて人心亂れ、蒙古襲來せんとして物情騷然、日蓮は日毎町の辻に立つて國難來を叫ぶ!この時代を背景とする戀と復讐の絢爛たる大繪卷を見よ!眞に注目すべき傑作

波瀾情炎 なり鶴七變化…角田喜久雄
江戸で賣り出しの女形春の家春之助は奇怪にも捕盜神隱流の達人!彼を中心に怪奇と妖艶、様々な男女が入亂れて息詰る様な大波瀾!

特別讀物 新作浪曲傑作集
(1) この感激 遺骨の入營…吉野夫三郎 この親にしてこの子あり!聞くさへ熱涙絞る『遺骨の入營』といふ感激物語
(2) 赤誠盡忠 二人の兵隊…水野草庵子 妹の黒髪を握りしめたまゝ亡き戰友の後を追つた兵士に絡はる友情美談
(3) 若妻の心 銃後の花嫁…中田比良夫 何といふ至純な愛情であらう。讃へんかな若き妻のこの貞節!この赤心!

スターはどんな風に育てるか? 映画監督の打明け話 松竹大船の島津保次郎監督が、秘話、珍話を織り交ぜての興味深い苦心談。

人氣花形身の上話 貧乏のドン底から…挿畫家 小田富彌
面白い内蒙古の話…善隣協會常任理事 大島豊

感動熱涙實話小說 限りなき愛…菅原泰潮
魂と魂の相寄る處、そこに眞個の教育が生れる!見よ極惡無類の教へ子を遂に改俊、全校の模範生たらしめた木村訓導の熱涙大感動實話

評判刑事、探偵捕物集
▲平和の町を襲ふ古足袋の謎…元警視廳刑事 大久保實水
▲戰慄の劫火!池に浮ぶ艶めかしい死美人!栗林公園の怪…海南新聞 渡邊種善

巻末附錄 讀切小說傑作選 とても面白い、讀み應へある力作ぞろひ!
▲俠客秘話 夢の市郎兵衛…平山蘆江 惡と義理!勝氣で通す美男の町奴市郎兵衛が一世の大活躍!
▲涙の人情 誓の原始林…畑耕一 刑餘人の働く、こゝ國境に近い樺太多來湖畔に起つた感動譚
▲優婉義俠 敵討碇床…久我荘多郎 女にとつて戀は生命であつた。見よ切々胸を抉る美女の哀戀
▲滑稽續出 戀よ、さらば!…鹿島孝二 妙な經緯から商賣仇となつた彼氏と彼女をめぐる青春明朗篇
▲痛快仁俠 脣紅啖呵…穗積驚 鬼のやうな處女の口から意外な啖呵!—瞬刻の後には……?
▲武士の心 怖ろしい男…三木壽太郎 紀州家に振りかゝつた大災難!驚くべき由井正雪の謀叛秘史

五分間傳記 型破りの實業家 住友總理事 小倉正恒氏
強い武人魂と人情味 新艦政本部長 鹽澤幸一中將
問答式 時の問題早わかり (日ソ漁業問題…田中丸祐厚 汪兆銘の離脫…米田實)

世間ばなし人情話…川尻清潭 ●悲しい戀しいと…●お寺詣り…●日日これ念佛…●不時の收入を喜ばず…●煙草の吸ひ方…●寒夜の玉子酒…●母の日記に泣く…●燕菓子と櫛手紙●佛の要求を拒絕

特別添付・小折本附錄 論語 文學博士 宇野哲人 抄譯
宇宙第一の書と賞され東洋道德の最高峰として古くから多くの人々に愛讀された孔子の名訓論語!

一家一冊!

キング三月號 定價六十錢 送料五錢 東京・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發行 (振替東京三九三〇)